

사슴의 건강관리

<지난호에 이어서>

5) 외부기생충에 의한 피부병

움 또는 진드기의 일종인 개선충이 피부에 기생하여 피부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한 가려움증으로 처음에는 습진과 같은 현상을 나타내다 탈모증까지 유발된다. 탈모된 피부가 두꺼워지며 딱지가 생기기도 하는데 특히 겨울철의 탈모현상은 대부분 개선충에 의한 피부병인 경우가 많은데 깃애충이 모근에 파고들어 기생하므로 탈모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구충제로 사슴체중 50kg당 1.0ml의 「LG 유백틴」을 주사하면 치료효과가 크다.

겨울철에 탈모증이 생기면 체력소모가 많아지고 쇠약해지며 2차적인 합병증이 우려되므로 증상이 나타나면서 즉시 치료토록 한다.

바. 비노기계 질병

1) 신장염

사료중에 유해성 화학물질이나 신장에 축적되는 물질을 오랫동안 급여하였을 때 발생되기도 하며 감염성 질병의 후유증으로 발병되기도 한다. 또한 절각시 급작스런 충격이나 타박으로 손상을 입어 발생하기도 한다.

노후한 사슴이나 지방축적이 많아 비대한 사슴에서 발병되는 수도 있으며 운동을 시키면 호흡곤란이 빨리 오고 심음도 불규칙하며 후구를 잘 쓰지 못한다. 털이 꺼칠하게 일어나며 특히 안면 부위에 부종현상을 볼 수 있다.

안정을 취하도록 하며 심한 운동을 피하고 항생제 등 대증요법을 사용한다.

2) 요로감염증

난산시 요로입구 부위에 손상을 받아 감염되거나 분만 후 오염된 물이 고인 곳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므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은 배뇨를 잘하지 못하여 자주 힘을 주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외음부가 붓거나 배변을 할 경우에도 힘을 많이 주게 된다.

불안해서 식욕이 떨어지고 열이 오른다. 또한 배뇨를 하기 위해 힘을 계속 주게 되면 질 탈이나 직장탈이 되기도 한다.

치료로는 소염제 및 항생제를 주사하고 이뇨제, 해열제 등을 주사하며 환부를 깨끗이 소독하고 염증으로 요로가 폐쇄되어 있으면 뇨 카타데로 배뇨를 시켜주고 외과적 처치를 한다. 무엇보다 사육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포피염

숫사슴의 생식기 포피부위가 헐어서 염증상태를 나타내거나 혈은 조직에 육아조직이 자라서 공같이 커지거나 늘어져 있는 경우이다.

또한 겨울철에는 배뇨물에 포피내에 정체되어 연약한 피부쪽에 동상을 유발시키므로써 포피주위 조직이 부어오르고 배뇨를 시원스럽게 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조직재생이 어려워져 치유가 잘 안되며 심하면 발정기때 교미를 할 수도 없으며 활동도 활발치 못하고 침울한 상태가 된다.

원인은 과도한 고농도의 단백질 사료를 계속적으로 급여함으로써 대사과정을 거쳐 뇨로 배출되는 암모니아가스가 포피조직을 계속적으로 자극하므로써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현

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조직이 혈고 손상을 입은 조직에 감염이 일어나 화농까지 유발한다. 치료 및 예방대책으로는 우선 콩과 같은 단백질 사료를 과도하게 급여치 말아야 하며 포피조직은 자극성이 적어 베타딘 용액으로 소독을 깨끗이 하고 항생제 연고를 발라 주도록 하고 소염제 및 항생제 주사를 한다. 만일 육아조직이 많이 자라나와 배뇨가 힘들거나 유착되어 있을때는 외과적으로 절제하여 치료해 주도록 해야 한다.

사. 산과질병

1) 불임증

원인은 영양상태가 불량하여 난소 발육상태가 미진한 경우, 난산후 후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궁축농증이나 자궁내막염 등을 유발하였을 경우, 자궁내의 지방축적이 심하거나 노쇠증을 일환으로 난소가 위축되었을 때이다.

증상을 보면 대체로 피모가 거칠거나 마르고 활동성이 활발치 못한 경우는 영양상태 불량으로 인한 불임상태이고, 외음부가 벌어져 있거나 화농성 침출물이 흐르고 악취를 발하는 경우는 자궁내막염 등에 의한 불임이다. 또한 특이증상은 없으나 비대하고 배가 부르며 활동성이 없는 경우 불임은 자궁내에 지방축적이 심하거나 노쇠한 사슴의 경우이다.

치료로는 미네랄과 같은 영양제의 투여로 체기능을 향진시키며 난소의 발육을 촉진시킴으로써 치료될 수도 있다.

자궁축농증이나 자궁내막염의 경우는 자궁을 세척하고 완전히 염증을 치료하여 자궁을 복원시켜야만 하고 지방축적이 많은 사슴은 사료를 조절하거나 「타이록신」 주사를 놓아 비만증을 치료하며 자궁을 원상복원토록 한다. 또한 난소기능 저하, 배란지연 등의 경우는 「고나도 레틴」 주사를 놓아 홀몬치료를 하면 효과적이다.

2) 난산

원인을 분류해 보면 사유장이 좁아 운동부족으로 과태현상을 초래하였을 때, 분만시 불

안 등으로 태아의 위치가 정상화되지 못하였을 때, 산도의 협착이나 자궁에 이상이 있을 때 등이며 대체로 초산의 사슴이나 노산의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분만기가 되어 진통분만이 시작되면 힘을 자주쓰게 되는데 이때 양수가 터지면서 30분~1시간 이내에 새끼를 분만하는 것이 순산이나 만일 정상 위치에 있으면서도 4시간 이상 경과하면 난산으로 의심해야 하며 인공배출시 키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일 인공배출이 어려운 경우는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구해야 한다.

※ 난산의 조치

난산이란 파수(양수가 터짐)가 되고도 자력으로 도저히 새끼를 분만치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태포속에 있던 태아가 자궁경관으로 밀려나올 때 다리가 꼬이거나 위치가 잘못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뒷다리가 먼저 나오는 역산 포함)

② 태아가 과태되어 산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③ 자궁경관이 개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수가 되어 태아의 배출이 어려운 상태 등이다.

이런 경우 전문수의사에게 의뢰하여 조속히 처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의사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경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이 축주가 처치할 경우에 알아 두어야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사슴새끼의 다리가 나와 있으나 발바닥이 하늘을 보고 있으면 역산(거꾸로 나옴)이 틀림없는데 이럴 때는 빨리 처치해야 새끼를 살릴 수 있으므로 포획통로로 몰아 놓고 보정한 다음, 사슴새끼의 다리를 깨끗한 장갑을 끼고 양쪽 다리를 평행하게 잡고 어미가 힘을 줄 때 당겼다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풀어 주었다가 힘을 많이 쓸때 같이 힘을 주어 당기면 쉽게 배출될 수 있다.

새끼가 배출되면 즉시 거꾸로 든채로 어미

가 있던 칸으로 가서 코나 입에 태수가 많이 차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호흡곤란할 정도로 태수가 차 있을 때는 태수배출기로 뽑아내도록 한다.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더이상 손을 대지말고 즉시 사람의 손이 갔던 곳에 태수를 발라 주어 자기새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미는 즉시 새끼가 있는 곳으로 풀어주어 새끼를 훑아 주고 돌보도록 하고 빨리 사육장에서 나와 먼 곳에서 관찰한다.

② 태아의 위치는 정상적이거나 쉽게 배출되지 않을때는 태아 머리가 옆으로 꺾여 있거나 뒤로 젖혀져 있거나, 자궁안쪽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이며 이때는 새끼가 지쳐 있는 상태이므로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소독된 수술용 장갑을 끼고 손을 집어 넣어 태아의 머리와 다리를 확인한 다음, 위치를 바로잡아 배출이 잘 되도록 하되 새끼의 앞다리는 분만줄로 매어놓아 다른 사람이 당길 수 있도록 하고 새끼의 머리를 한쪽 손바닥으로 감싸고 앞다리를 잡아당길 때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 산도 밖으로 배출이 용이하도록 돕는다.

③ 난산으로 새끼를 배출시키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 새끼가 자궁내에서 폐사하여 불어나게 되고 태수는 말라붙어 더욱 배출이 어렵게 된다. 이런 경우는 빨리 수의사에게 의뢰하여 처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난산을 하여 새끼는 배출시켰다 하더라도 후산이 되지 않고 정체되는 수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잘 관찰하였다가 분만 2~3일 후에 수의사에게 의뢰하여 후산물을 꺼내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때 자궁세척도 병행하여 후산물 찌꺼기가 자궁에 남아있어 자궁내막염이나 자궁축농증을 유발하여 불임이 되지 않도록 처치한다.

⑤ 난산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여 새끼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새끼를 인공 포유시켜야 하며 초유를 먹지 못한 새끼는 폐사율이 크므로 어미를 통로에 몰아넣고

젖을 짜서 먹이도록 시도해야 한다. 성질이 예민한 사슴은 마취를 약간해서 젖을 짜서 새끼에게 먹이도록 한다. 이 두가지 방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는 가능하면 염소나 양의 초유를 구하여 먹여도 가능하다.

3) 자궁탈 또는 질탈

난산시 간혹 자궁이나 질이 외음부로 뒤집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돌아다니거나 앉으므로 자궁점막에 심한 상처로 출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빨리 사슴을 마취시킨 후 외부로 나온 질이나 자궁을 깨끗이 세척하여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정복시킨다. 정복후에도 다시 빠져 나오지 않도록 외음부를 이중으로 결찰하여 주되 요로 입구를 결찰하면 배뇨가 잘 안되므로 주의한다.

아. 기타 질병

1) 제대감염증

오염이 많이 되거나 청결치 못한 사육장내에서 새끼를 분만하였을 때 떨어진 탯줄에 쉽게 세균이 감염되어 발병하게 된다. 특히 탯줄이 짧게 끊어져서 배꼽이 벌어져 있는 상태는 더욱 감염 위험이 크다.

증상을 보면 분만된지 며칠 안된 새끼가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며 젖을 빨지 못하여 열이 오르고 눈동자가 흐리거나 백태가 끼는 급성 간염증세를 나타낸다. 심하면 허탈상태에 빠져 2~3일내에 폐사하기도 한다.

치료 및 예방대책으로는 우선 이상한 새끼 사슴은 빨리 발견하여 진단토록 하며 탯줄(배꼽)을 확인하여 이상이 생겼으면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강욕도로 씻어 준다. 만일 배꼽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결찰해 주어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치한다. 그리고 항생제, 소염제, 간기능성 약제 등을 주사하며 2~3일간 계속 치료해 주어야 한다.

2) 관절염

주로 외부적 자극에 의한 타박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증상을 보면 다리를 절거나 땅에

던지 않고 들고 있으며 자세히 관찰해 보면 관절부위가 부어오르고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고 관절강내에 조직액인 출혈액이 고여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빨리 흡수되지 못하면 국소적 순환장애를 일으켜 화농되기 쉬우며 화농물질이 관절강내에 확산되며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경우까지 악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발견되는 즉시 치료토록 하되 부종부위에 고인 혈액이나 조직액은 피부를 잘 소독한 후 주사기로 뽑아내도록 하며 만일 재차 고이게 되면 한쪽 밑 부분에 구멍을 뚫어 놓아 이러한 조직액이나 혈액이 흘러 나오도록 한다.

만일 혈액이 계속 고일 경우는 혈관의 파열로 인한 출혈이므로 지혈제를 주사하도록 하며 화농되지 않도록 항생제나 항염제를 며칠간 계속 주사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절부위는 외부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깨끗이 소독해 주어야 하고 강육도나 진통소염제 스프레이로 1일 1~2회 스프레이를 해 줌으로써 관절 강내에 고인 침출물들이 빨리 흡수되고 화농하지 않도록 치료해 주어야 한다. 만일 화농성 물질이 생기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3) 식도폐쇄

간혹 어린 새끼가 이유후 사료를 채식하다 사료편이 덩어리채 식도로 넘어가 걸리는 경우가 있으며 성록인 경우도 때론 알팔파큐브와 같은 사료를 먹다가 덩어리가 식도에 걸리는 경우도 발견된다.

만일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사슴을 빨리 보정하여 목주위를 훑어 내리고 자극을 주게 되면 토해내는 경우도 있으나 알팔파와 같은 경우는 침이나 점액과 같이 식도점막에 달라붙어 식도를 폐쇄해 버리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식도하부인 위장 바로 윗부위에 정체하게 되면 배출시키기도 어렵고 난치성이 된다.

증상은 고통스러워 하며 식욕을 절제하고 침을 흘리거나 물을 먹어도 토해낸다. 이런 경

우 긴 위카테타를 식도로 통과시켜 물을 부으면 식도가 약간 확장되면서 사료덩어리가 위속으로 떨어지면서 치료되는 수도 있다.

4) 과상풍 감염

사육장내의 녹슬은 철망이나 시설물 등에 뽕이나 근육조직 깊숙이 상처를 받아 발생하기도하여 특히 녹용 채취기에 비위생적으로 소독안된 주사바늘로 마취하거나 절각시 소독되지 않은 튼을 사용함으로써 감염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증상은 목부위가 경직되며 연하곤란으로 침을 흘리고 잘 먹지 못하여 사지 마비증세가 와서 앉지를 못하고 눈동자가 심하게 돌아간다.

발병된 지 2~3일이 경과하면 심한 고열을 동반하며 잠복기가 15일 정도이므로 진단에 혼동을 가져 올 수 있다.

치료로는 「테타누스 안티톡신」을 꽃사슴의 경우는 5,000단위 이상, 엘크의 경우는 25,000단위 이상을 주사토록 하며 항생제로는 페니실린 계열의 약품을 사용하고 해열제 등을 사용한다. 무엇보다 예방에 힘써야 하며 사육장의 녹슬은 철망은 보수토록하고 절각시에는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제병

사육장내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거나 배수구가 없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질척질척한 땅에서 사육하였을 때 많이 발병되며 발굽이 물렁물렁하여 조그만 상처에도 쉽게 감염될 수 있으며 급속히 증세가 악화된다.

발톱이 썩어 들어가는 균의 번식으로 인하여 치유가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환부를 소락하여 침투를 막도록 하고 건조한 사육장에서 치료하여야만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증상을 보면 파행을 하며 자세히 관찰하면 발굽주위가 붓고 염증상태도 때론 관찰될 수 있으며, 심하면 괴사되어 조직의 탈락도 볼수 있다.

치료로는 환부를 깨끗이 소독한 후 괴사된 조직은 깎아내고 소락시키고 목타르 같은 것을 발라 수분 침투를 막아주며 고단위 항생제

및 소염제를 주사하고 부제병 예방용 스프레이를 뿌려준다.

6) 골수염

녹용 채취시 비위생적으로 뼈를 절단하면, 뼈에 염증을 일으켜 뼈속으로 감염상태가 진전되어 발병되는 수가 많으며 그외 타박, 골절 등의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근육층 뿐만 아니라 뼈속으로 감염이 진행됨으로써 발병되기도 한다.

뼈에 깊숙히 염증이 파급되면 선회운동을 하며 식욕부진, 발열, 우울증, 활동기피 등 증상을 나타낸다.

치료로는 빨리 발견하여 외과적 처치를 하고 고단위 항생제, 소염제 등을 주사하여 염증의 파급을 막도록 한다.

7) 항문폐쇄

포유중인 새끼사슴에서 간혹 발견되며 어미가 새끼를 과잉보호하여 너무 새끼의 항문을 자주 핥아주므로 발생된다. 항문이 혈어 조직액이 나와 연약한 항문주위 조직이 서로 붙어버리므로 항문폐쇄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배설물이 배출되지 못하여 가스와 함께 장에 축적되므로 복부가 팽대되고 급기야는 견지도 못하고 오래 방치하면 폐사하기도 한다. 발견 즉시 항문수술을 실시하여 배변토록 해야하고 치유중에는 어미와 격리시켜 인공포유토록 한다.

8) 치조염

치아의 마모가 심한 늙은사슴에서 간혹 발생되며 사료 채식시 잇몸에 상처를 입거나 예리한 사료편이 이빨 사이에 끼어 염증을 유발시켜 발생된다.

특히 겨울철에 딱딱한 나뭇가지에 찢려 치근에 염증을 일으키므로 발생하는 수가 있는데 심하면 하악골이나 상악골까지 파급되어 예후가 불량해진다.

증상은 침을 흘리며 저작이 곤란하고 사료편이 볼 안에 정제되어 붙어 붓는다.

치료로는 염증부위를 깨끗이 소독하고 사료

가 구강내에 축적되면 제거해 주고 심하면 발치하거나 수술을 해야 한다.

9) 골절

사슴은 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리가 골절되면 보정이 쉽지 않으므로 골절된 부위에 따라 응용하여 기브스를 하거나, 뼈가 피부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접합이 힘들어지므로 절단토록 한다.

기브스를 할 때 석고붕대를 사용하면 무거워서 고정이 되지 않으므로 면으로 된 넓은 반창고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기브스는 약 1개월 전후에서 풀어주면 대체로 접합이 잘된다. 무엇보다 사고의 예방에 주력해야 하며 사슴을 갑자기 놀라게 하여 뛰지 않도록 하고 철망이나 시설물 등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항상 점검이 필요하다.

10) 사슴의 전염병

사슴은 초식을 하는 반추동물로서 다른 초식동물에서 발병되고 있는 전염성 질병이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전염병 발생보고가 아직까지 없으나 양질의 생산물을 생산하여 보건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전염이 가능한 질병으로는 결핵, 요네병, 부루세라병, 광견병, 탄저, 소백혈병, Q열, 트리코모나스병, BVP, IBR/IPV, 팜피로박터병, 오제스키병, 우역, 우폐역, 수포성구내염, Lumpy Skin Disease, 출혈성 패혈증 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입되는 사슴의 검역이 철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전염병 예방의 첫째 관문이며, 둘째는 국내에서도 주요질병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예방토록 해야 할 것이다.

<표 참조>